

빛가람혁신도시 1만2천명 돌파 정주여건 개선 속도

공동주택 5468세대 올해 공급

유치원·초교 1곳씩 추가 개교

도시숲 등 경관 정비 나서기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등록인구가 지난해 말 1만2000명을 넘어서면서 전남도, 나주시, 전남도교육청 등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인구의 80% 이상이 타지역 전입인구로, 도시 정주 여건 향상을 통해 주민 거주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4년 말 3895명이던 빛가람혁신도시 인구는 2015년 3월 6176명, 같은 해 9월 1만267명으로, 1만명 선을 넘어선 뒤 지난해 말 1만24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별 평균 24%의 인구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 가운데 나주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전입한 인구는 1만140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학생 수도 1335명으로 초·중·고·대학생 259명, 고등학교생 217명 순으로 조사되는 등 교육관련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순천 선암사·해남 대흥사 세계유산 선정될까

유네스코 등재 후보 올라

‘한국의 전통산사’인 ‘순천 선암사’와 ‘해남 대흥사’가 2017년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됐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연말 열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후보를 심의한 결과 한국의 전통산사(선암사, 대흥사, 범주사, 마곡사, 통도사, 봉정사, 부석사)가 뽑혔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신앙적 기능, 수행자의 삶과 문화를 포함한 의례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했다. 세계유산분과는 오는 2016년 7월 추진 상황 평가를 거쳐 2017년 등재신청서 제출, 2018년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

이에 따라 전남도 등은 빛가람혁신도시 내 들어설 공동주택 1만7952세대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468세대를 올해 공급하는 한편 학생수 증가에 대비해 유치원과 초·중교 1곳씩을 추가 개교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 2곳, 초교 1곳, 중학교 1곳, 고교 1곳 등이 운영중이다.

이외에도 전남도와 나주시는 불법광고물, 도로적치물, 불법건축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간판(네온사인) 점검 등 도시미관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녹지 확보를 위해 도시 숲경관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빛가람혁신도시 곳곳에 동백 등 800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북측 연결도로도 올 상반기 조기 착공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일부 주민들은 도시 내 상업시설이 지나치게 많이 배치돼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박모(47)씨는 “도시 이곳저곳에 상업시설이 지나치게 많다”며 “거주인구의 쾌적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하고 있다.

순천 선암사는 20여 동의 건물로 구성되고 법화계 사상에 바탕을 둔 중심 영역은 쌍탑 가람 형식으로 배치됐다.

다른 사찰들에 비해 승방의 규모가 크며 중층의 ‘ㄴ’자 형태다. 대웅전, 원통전, 응진당, 각황전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 경사지고 좁은 대지를 적절히 이용한 배치 방법은 동선 체계에서도 종과 형의 흐름을 모두 적절히 고려한 특징이 있다.

해남 대흥사는 45동의 건물이 있으며 넓은 산간 분지를 4곳으로 나눠 대웅전, 전불전, 표충사, 대광명전 영역으로 도량이 형성돼 있다.

본래 계류를 중심으로 남·북원 일대에 집중돼 도량이 조성돼 있어 계곡이 남원과 북원을 가로지르며 영역을 구분하는 가람 배치가 특징이다.

유네스코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한 국가당 1년에 1개 유산만을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산사’는 지난 2013년 12월 1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올랐고, 2014년 8월 6일 한국의전통산사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가 발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핵미사일 무장 미 B-52 폭격기 한반도 상공 전개

‘북 도발’ 대응 시작…동북아 격랑 속으로

B-52 장거리 폭격기 한반도 전개 상황



3000km 거리 목표물 정확히 타격 지하시설 파괴 ‘병커버스터’ 탑재

B-52 위력

미국 전략무기 B-52 장거리 폭격기는 3000km 떨어진 거리에서 북한의 지휘부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다.

최대 31t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의 거리를 날아가 폭격한 후 돌아올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로 단독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35t에 최대 항속거리가 1만6000km에 달한다.

최대 상승고도는 5만 5000ft로 고고도 침투가 가능하며 2000파운드(약 907kg)의 재래식 폭탄 35발과 순항미사일 12발 등을 장착할 수 있다. 처음에는 핵폭탄과 재래식 폭탄만을 탑재했지만, 개량을 거쳐 공중발사 크루즈(순항) 미사일과 핵탄두 공대지미사일까지 갖추게 됐다.

이 가운데 사거리 2500km인 AGM-86 공중발사 순항미사일과 사거리 3000km의 AGM-129 핵탄두 스텔스 순항미사일은 가공할 위력을 자랑한다. 2500~3000km 떨어진 상공에서 발사하면 목표물 타격 정확도가 100m 이내이다.

목표물의 반경 100m 이내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위력이다. 북한의 지상 지휘부시설을 원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땅 깊숙이 파고들어 지하동굴을 파괴하는 가공할 폭탄인 ‘병커버스터(GBU-57)’를 탑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 반발로 긴장 고조…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구도 부각될 수도

북한의 제 4차 핵실험에 대응한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 한반도 출동을 비롯한 한미의 군사적, 비군사적 조치가 구체화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점점 격랑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한 대응 조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북한이 반발하면서 군사적 긴장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적지 않아 앞으로 주변정세는 더욱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하는 한미일과, 북한을 여전히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며 제재수위를 조절하려는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하면 정세 불안이 가중될 수도 있다. 중국의 완충역할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B-52의 한반도 전개는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 군사적 ‘압박’과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억제’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군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북한 김정은 정권에는 아킬레스건으로 평가되는 대북 핵심기 방송을 최전방 11곳에서 재개했다. 여기에서 한미 정상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를 공언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른바 이달 말 구체적 제재가 나올 예정이다.

북한 김기남 노동당 비서는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 당일 “나라의 정세를 전쟁 접경으로 몰아가

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첫 반응을 보였다. 긴장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중국의 건설적, 적극적 역할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고강도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B-52 장거리 폭격기 한반도 전개에 대해서도 중국이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반응과 관련, 초반에는 북한에 대한 비판적 반응이 부각됐으나 며칠이 지나면서 “다른 국가들도 긴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감싸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미일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께 도쿄에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일 차관 회의와 3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 회동,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욱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곧 한미일 대 중국, 더 나아가서는 전통적인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다시 부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가시화로 대북 제재전선이 이완되는 것은 핵실험 전에 북한의 선행에도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를 배제하면서 중국과의 적극적 역할을 끌어내기 위한 한미일의 노력, 특히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안보 관광 운영 중단…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전방·접경지 분위기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핵심기 방송 재개 사실을 접한 10일 전방·접경지역 주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큰 동요 없이 일상을 보냈다.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기·인천·강원 주요 안보 관광지는 운영을 중단해 적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중단했던 경기도 포천시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이틀째 훈련을 이어갔다.

▶접경지역 주민들, 뉴스 귀 기울이며 차분한 일상= 고성 통일전망대, 양구 울진전망대와 제4땅굴, 철원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 화천 칠성전망대 등 강원 전방지역 안보관광지들은 사흘째 운영을 중단했다. 파주 통일전망대,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 전망대, 강화 평화전망대, 연천 상승·대동·열쇠 전망대 등 경기·인천의 안보관광지 상황도 마찬가지다. 혹시나 해 전망대 구경을 하러 왔다 발길을 돌리는 일부 관광객만 눈에 띄었다.

국내 유일 비무장지대(DMZ) 내 마을인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 김동구 이장은 “주민 모두 아직은

별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며 “뉴스에 귀를 기울이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군, 최전방지역 최고경계태세= 군 당국은 최전방지역에 최고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 대비해 대북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군이 대북 핵심기를 재개한 지난 사흘간 북한 장제도와 대수압도의 포진지는 문을 여닫는 모습이 관측됐다. 해병대 연평부대는 지난 6일부터 장비와 투입 병력을 늘리며 경계태세를 대폭 강화했지만, 해병들의 휴가를 통제하지는 않았다.

이 부대 관계자는 “북한군이 포진지 문을 여닫는 것은 흔하게 관측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북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 미군도 어제부터 경기도 포천시 영종면 영평사격장에서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연평면사무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 남은 대피소 15곳을 제외하고 새로운 대피소 7곳을 24시간 개방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떡갈비

12,500원

취학어린이(초등학교)

떡갈비

8,500원

미취학어린이

떡갈비

5,000원

초·중·고생

떡갈비

14,500원

초·중·고생

떡갈비

9,000원

초·중·고생

떡갈비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 재산조치비용 無 ☑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

2016년 부동산 전망 및 성공 투자 전략 무료 大 특강

99%적중률... 누구에게나 속사·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방향 제시!!

장 소

롯데백화점 11층 문화센터

일 시

2016. 1. 13(수)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1교시

(1) 2016년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폭집개 투자 전략 대응법 공개

(2) 부동산 지역별/물건별 맞춤 투자 전략

2교시

(1) 광주·전남 개발계획에 따른 돈되는 부동산 매물 공개 및 정확한 수익성 분석

(2) 부동산 가격 상승 핵심지역 분석-임대수익과 시세 차이 동시 공략 비법

3교시

(1) 개발지 토지 투자(소액포함)로 영원히 월세받는 비법 대 공개-이번 기회 놓치면 후회!!

김영표 부동산 실전문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공서 및 대학교 초빙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칼럼 게재중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